

항공 조종사 불자회 생긴다

11월 9일 전등사에서 창립총회·기념법회

두달에 한번 법회, 외국인 통역봉사도 소모임 위주... 부부 불교모임 내달 결성



그림 / 김영민

항공조종사 불자회가 창립된다. 항공조종사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최근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는 11월 9일 강화 전등사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병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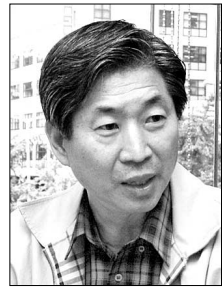
이번 항공조종사 불자회 출범은 최초의 민항기 조종사 신행단체로, 앞으로 미장립 전문직 불자회 창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위는 창립 발기인 모임에서 창립 취지문을 작성하는 한편, 창립준비위원회에 정성구 기장(아시아나항공 747 안전 운항팀)을, 총무에 이 행운 기장(대한항공)을 선출했다. 회원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제2사관학교 출신 30여 명의 불자조종사들로 구성됐으며, 초대 지도법사에는 강화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이 추대됐다.

준비위는 우선 정기적인 신행활동 등 기반 조성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두 달에 한번 정기법회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민항기 승무원 불자회와의 합동법회도 추진한다. 또 인천·강화 지역의 전통사찰을 순회하는 산행법회를 열어, 지역 불교문화의 이해를 넓히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준비위는 가족 중심의 신행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는 회원들 대부분이 짝을 해의 비행 일정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항공조종사 불자회의 중심을 부부 소모임에 둔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11월말까지 '부부 불교공부모임'을 결성하고, 전 서울대 교수 박종 법사를 초빙해 특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 통역 자원봉사 활동도 펼친다. 전등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 한국불교문화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힘찬 불교 새바람 일으킬 것”

항공조종사 불자회 준비위원장 정성구 기장



정성구 기장

“조종사 불자들이 새바람, 새바람, 힘찬 불교를 일으킬 것입니다.”

항공조종사 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 정성구 기장(55·법명 명선·사진)은 불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불자회 결성에 나섰다 밝혔다. 특히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재가불자들이 모여 한국불교에 새바람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민항기사는 천주교, 개신교 신행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천여 조종사 중, 불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조종사 불자회를 통해 불자 조종사들의 단합을 도모할 것입니다.”

정 기장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법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월별 신행 스케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비행 일정을 매월 초에 수집, 최적의 신행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실 조종사의 업무 특성상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 비행지에 따른 시차적응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모임이 있는 기회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정 기장은 이와 함께 정년퇴임한 10여 명의 조종사 불자들을 고문단으로 위촉해, 조종사 선후배간 정보교류와 친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서울·경기 50여 불자회 참여 지역불자회서도 각종 봉사

오는 11월 2일을 ‘제1회 공불련 사회봉사의 날’로 제정한 공무원 불자들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 443호 18면 기사 참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직장기능연합회 공동사무실에서 서울·경기지역 기관 불자회 임원단 예비 모임을 갖고, 내달 2

11월 2일 공불련 첫 사회봉사의 날

‘중국 동포 어울림 마당’ 행사

일 서울 구로구 관교포교당에서 ‘중국 동포와의 어울림마당’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불자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대한민국경철불교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등 서울·경기지역 50여 기관 불자회 250여 회원들이 일제히 동참한다. 또

봉사 영역도 단순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지역과 회원들의 업무 특성을 살린 의료, 노동·법률·신행상담 등 다양화·전문화한다. 공불련은 250여 전국 산하 기관불자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유도하기 위해 봉사 일 시간 및 활동 기관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무국은 지역 및 업무별 추천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현재까지 공불련이 파악한 불자회별 준비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불자회는 11월 1일 서울 구기동 중앙사당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서울 구로구청불자회는 11월 2일 구로구 장애인복지시설 ‘더불어사는집’에서 목욕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부산 기장군청불자회와 경남 거제군청불자회, 서울 은평구청불자회 등도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자원봉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구인사서 하반기 수련대회
인천공항공청 불교회(회장 전인배·사진)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하반기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구미 시민복지회관장 승진
경상북도 구미시청 불자회 신영근 회장(사진)은 15일자로 구미 선산읍에서 구미 시민복지회관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다.



창립15주년 기념법회 봉행
한국언론기자불자연합회 부산지역회(회장 조홍인·사진)는 30일 오전 11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립3주년 기념법회 열어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정석·사진)는 25일 경남 통영시 한산사에서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지일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제3기동대 경승실 개원
대한민국경철불교회(회장 김중겸·사진)는 24일 서울시 송파 서울경찰 기동대 제3기동대 경승실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제2회 산사음악회 개최
경북 청도군청 공무원불자회(회장 최순문·사진)는 25일 청도군 화양을 대웅사에서 제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 총화종 운주산 도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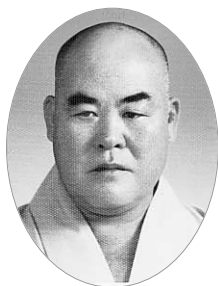
도선사에서 지난 10월 15일 주최한 국악인 심재돌 일행 25명 초청 청송 제1감호소 위안 국악공연이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황리에 회향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선사는 현재까지 3년여에 걸쳐 매월 재소자 위안법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중생구제를 위해 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한불교총화종 경북교구 총무원장
포항 운주산 도선사 주지 **운산 합장**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 2리 1488
전화 054)246-4467 전송 054)241-4718



평화통일기원실상탑 1주년 기념통일기원법회 및 수재민을 위한 산사 콘서트

- 1부 식전행사 (10:00~)
- 2부 1주년 통일기원대법회 (12:00~1:30)
- 3부 수재민을 위한 산사 콘서트 (1:30~)
 - 사 회 : 이상민
 - 출연진 : 오은주, 김상배, 김태진, 마당놀이 풍바, 민요



2547년 11월 1일(음 10월 8일(토)) 오전 10시~
팔공산 관봉암산 응주암

○ 버스운행편(당일운행)
대구 - 응주암
오전 7시 부터 12시 30분까지 동대구역 육교입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
응주암 - 대구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응주암주차장에서 갓바위 대구 주차장까지 운행

태풍매미가 활취고 간 수재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십시오!!

팔공산 갓바위 앞산 **응주암 주지 成鶴 합장**

우리불자회는요

감정평가사 불자회

‘제1회 부부불교학당 개최, 외부 강사 초빙 특강, 사찰·불자들을 위한 재산평가 무료상담...’ 우리 감정평가사불자회가 벌여온 특색 있는 신행활동들입니다. 창립 1년도 지나지 않은 새내기 불자회지만, 어느 불자회보다도 튀지 않는 활동력을 선보인 것은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깊은 신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설명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아마도 생소하게 들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및 정착물과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동산, 기타 재산 등에 관해,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

학교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을 추대하는 법회도 봉행했습니다. 또 9월 23일에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초빙, 동국대학교 석암세미나실에서 ‘생명복제기술과 불교의 접촉’이란 주제로 특강을, 10월 21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희섭 교수에게 ‘뇌와 불교’란 주제로 강의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회의 가장 큰 자랑은 가족 단위 신행활동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올 9월부터 시작한 ‘감불회 제1회 부부불교학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는 11월 28일 까지 매주 강남 정릉사에서 열리고 있는 부부불교학당은 총 12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는 한국빨리이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이 직강



▷감정평가사 불자회원들이 올 6월 6일 경주 남산 일대로 첫 성지순례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족 중심 신행활동... 부부 불교학교 열어 고승 초청·불교문화체험 테마법회 계획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올 4월 26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총회와 함께 봉행했습니다. 12명의 창립 발기인들이 모여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때의 환희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우리 불자회는 꾸준히 사업을 알차게 전개해왔습니다. 첫 사업으로 ‘초파일 연등만들기 가족문화체험’을 서울 방배동 정릉사에서 열어 가족 중심의 신행활동을 펼쳤고, 올 6월에는 경주 남산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나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혔습니다. 이번만 아니었습시다. 8월에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정토사로 부부가족산행을 했고, 우리불자회 지도법사로 동국대

을 하고, 전 박사의 역서 <오늘 부처님에 묻는다면-한권으로 읽는 쌍둥다니까야>를 교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기존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선지식 초청 법회를 열고, 불교문화체험 테마법회도 가질 생각입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인경체함을 하거나 미항사에서 탁본체험을 준비할까 합니다. 특히 미래불교를 위한 연대 사업으로 군포교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회비의 20% 정도를 적립해 군포교 교재개발, 미디어 등의 기기를 구입해 군부대로 찾아가는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임학중 총무